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3권 제3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17.13.03.083 2017, Vol. 13, No. 3, pp. 83-10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Supportive and Non-supportive Reactions to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Young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

윤경미[1] 한세영[2]

Kyeong-Mi Yun[1] Sae-Young Han[2]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mother's reactions to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thods: A total of 346 mothers with toddlers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irst, mothers' supportive response to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cluding expressive encouragement, emotion-focused reactions, and problem-focused reactions, showed negative relations with the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Mothers' unsupportive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cluding distress reactions, minimization reactions, and punitive reactions, showed positive relations with the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Second, an interactive effect was observed. For external problem behavior, mothers' lower distress reactions accompanied by higher emotion-focused reactions, lower punitive reactions accompanied by higher emotion-focused reactions, lower distress reactions accompanied by higher problem-focused reactions, and lower punitive reactions accompanied by higher problem-focused reactions all decreas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However, for internal problem behavior, only mothers' lower distress reactions accompanied by higher emotion-focused reaction decreas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Conclusion/Implication: The main interaction effect on mothers' reaction to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shows that preventive intervention is needed to address problem behavior.

key words mothers, young children,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problem behavior

[1] **제1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ewha.ac.kr)

Ⅰ. 서 론

유아기는 사회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주양육자나 또래관계와의 상호작용 속

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유영신, 유연옥, 2015). 유아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 갈등, 좌절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유아는 이러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인다(임현주, 2015). 최근 유아의 문제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김연, 2007), 유아기부터 문제행동은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수 있고,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일탈행동이나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송진숙, 2003; Mathiesen & Sanson, 2000), 유아기에 보이는 문제행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안효진과 임연진(2011)은 문제행동을 유아기 발달 연령에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다. 또한 Larzelere, Amberson 그리고 Martin(1989)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평균적인 경향성을 따르지 못할 때 문제행동으로 보았다. 즉, 유아의 문제행동은 발달 연령에 기초하였을 때 규범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은 정서문제와 행동문제가 함께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를 고려하여(정길정, 배윤정, 2005), 특히 유아기에는 회피행동이나 반항행동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심리적인 불안, 두려움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을 자주 보일 수 있어 이러한 자녀의 행동을 어머니가 잘 관찰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척도(박효주, 김영희, 2000)를 사용하여 외현화·내면화 문제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갈등, 공격성, 과잉행동 등과 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갈등으로 인한 행동적 문제를 말한다. 반면에 내면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가 표현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우울, 위축, 철회 등과 같은 심리내적인 문제행동을 의미한다(Achenbach, 1991).

최근 유아기의 문제행동 예측을 위한 환경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공영숙(2012)은 유아에게 어머니는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를 갖는 대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며(Denham, 1984),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보았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박효주, 김영희, 2000; 유영신, 유연옥, 2015; 이찬숙, 이채호, 2009). 그 외 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유무, 자녀의 성별, 자녀의 출생순위(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이찬숙, 2008; 송진영, 송진숙, 2015) 등이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행동, 태도의 관계보다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나 태도가 아동의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보다 화, 두려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다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Dunn & Brown, 199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Davidov & Grusec, 2006), 이는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 할 때 어머니는 다양한 반응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유아는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서적 대처 방법을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최근에 제기된 차별적 민감성 모델(Belsky, 1997, 2013)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Belsky, 2005), 민감한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꾸짖거나 화를 내는 등의 비지지적이 반응을 보일경우 더 취약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 정서를 잘 표현하도록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이 또한 민감하게 흡수하여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조인영, 2016).

한편, 유아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을 다룬 정윤주(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유아는 부적응적인 태도를 더 또는 덜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uck(1984)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자녀는 불안을 경험하고 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Fabes, Eisenberg 그리고 Bernzweig(1990)가 개발한 The Coping With Child'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를 통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Fabes 등(1990)은 반응행동을 6개의 하위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에 있어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하고 격려하는 감정표현격려반응, 유아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정서중심반응,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중심반응, 유아가 가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최소화하여 나타내는 최소화반응, 어머니가 언어나 신체를 이용하여 꾸짖는 처벌적반응, 어머니의 심리적인 괴로움, 위축 등을 표현하는 스트레스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란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을 포함하는 반응이며,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 스트레스반응을 포함하는 반응을 말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부정적 감정표현에 대한 격려나 정서중심반응 또는 문제중심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은 높아지며(Gottman, Katz, & Hooven, 1996),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할수록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은 낮아진다(노지영, 정윤경, 2010; 박유경, 2009). 조인영(2016)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경우, 어머니의 낮은 지지적 반응은 또래유능성을 낮게 하며, 낮은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수록 또래유능성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인 처벌적반응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권연희(2012)는 자녀의 부정정서에 있어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덜 보일수록 사회적 위축성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김지연과 남은영(2011)은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해 지지적 반응을 할수록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 높고, 비지지적인 처벌적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더 보이면 아동이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선행연구(강희연, 강문희, 1999; Eisenberg & Fabes, 1994)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을 보이게 되면 유아는 긍정적인 대처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Denham과 Grout(1992)은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거

나 처벌적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는 문제행동에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표현에 대해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경우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꾸짖는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자녀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후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게 되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보이는 어머니의 반응행동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보이는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인 반응행동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은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의 효과에 접근함에 있어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요인은 그러한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언제나 일관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단선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양육태도가 항상 정서중심적이거나 처벌적이기만 하지는 않고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안에 정서중심반응과 같은 지지적 반응과 처벌적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매번 일관되게 지지적인 반응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여 일관된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어머니들이 있는 한편, 또 다른 많은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항상 동일하게 한가지 반응만을 보이지는 않으며, 다양하고,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양육반응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공존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반응들이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비일관적 양육의 부정적 효과는 익히 알려진바 있어, 많은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과 부정적 발달결과의 상관을 보고하였다(이은경, 한세영, 2016; 전란영, 김희화, 2016).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높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정계숙, 노진형, 2010),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또는 비일관적 행동을 많이 나타낼 경우, 이로 인해 유아가 부정적인 자아상 및 수치심을 경험하고 자율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윤, 김은희, 2014). 유사한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비일관성의 효과를 살펴본 국외연구에서는 유아를 칭찬받을 상황에서 부모의 방법이 다르게 번갈아 나타나 비일관적인 경우 유아의 동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Zentall & Morris,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의 양육행동이 같이 발생하여 양육에서 비일관성이 생길 때,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 국한시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하기도 하고 비지지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비일관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어머니의 양육반응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스트레스반응, 최소화 반응, 처벌적반응)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모두 발생할 때 그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개입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의 선정된 충청북도 소재 유치원 2곳, 사립 어린이집 6곳에 다니는 만 3세, 4세, 5세를 둔 유아의 어머니 4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설문지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고자 2014년 8월에 청주시 소재 어린이집 2곳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2014년 9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361부(회수율: 90.2%)를 회수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5부를 제외한 346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0%, 여아가 50%이고, 연령은 만3세가 20.5%, 만4세가 37.3%, 만5세가 4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36.8%, 대졸이상이 63.2%이며,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45.4%, 취업주부가 54.6%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46)

구분	*n*(%)
유아 성별	
남	173명(50%)
여	173명(50%)
유아 연령	
만3세	71명(20.5%)
만4세	129명(37.3%)
만5세	146명(42.2%)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25명(36.8%)
대졸이상	214명(63.2%)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155명(45.4%)
취업	186명(54.6%)

2. 측정도구

1) 유아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위한 측정도구는 Larzelere 등(1989)이 개발한 Toddller Behavior Checklist (TBC)를 박혜원(2012)이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미성숙, 심리적 불안, 위축행동, 반항적 행동, 공격성, 주의력결핍,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행동, 주의력 결핍, 반항적 행동을 나타내는 외현화 문제행동 8문항(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심리불안과 위축행동을 나타내는 내면화 문제행동 12문항(예: 매우 수줍어하며 소심하게 행동을 한다)으로 총 2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외현화 문제행동 .82, 내면화 문제행동 .76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Fabes 등(1990)의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CCNES)를 배주희(2011)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이 제시되고, 각 상황에 대한 어머니가 보이게 되는 6가지 반응행동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반응행동은 지지적 반응으로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 비지지적 반응으로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으로 각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72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상황에서 (예: 유아가 아프거나 다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갈수 없게 되었을 때 자녀가 화를 낸

다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행동)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은 유아의 부정적 감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격려하는 반응이며(예: 유아가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해 준다), 정서중심반응은 유아의 기분을 좋아질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반응이며 (예: 유아를 위로해주면서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해 준다), 문제중심반응은 유아가 느끼는 원인을 해결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예: 유아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다. 비지지적 반응으로 스트레스반응은 어머니가 직접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아에게 직접 드러내는 반응(예: 유아에게 어머니가 짜증을 표현한다)이며, 최소화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에 있어 원인이 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 시키려는 반응(예: 유아에게 파티에 빠진 일은 별 일이 아니라고 말해준다)이며, 유아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였을 때 언어적, 신체적으로 벌을 주거나 꾸짖는 반응(예: 유아에게 울지 못하도록 하며 방으로 보내 화를 가라앉게 한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반응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응행동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감정표현격려반응 .75, 정서중심반응 .79, 문제중심 반응 .76, 스트레스반응 .62, 최소화 반응 .67, 처벌적반응 .80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예측된 방향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구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할 경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상·하 집단으로 구분 후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행동과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행동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은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r = -.12 ~-.25, p < .05) 반면, 스트레스반응, 처벌적반응, 최소화반응은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6~.35, p < .01).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을 높게 보일수록,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을 적게 보일수록 유아는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

〈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N* = 346)

구분	1	2	3	4	5	6	7	8
1.감정표현격려반응	1.00							
2.정서중심반응	.43**	1.00						
3.문제중심반응	.53**	.74**	1.00					
4.스트레스반응	-.13*	-.35**	-.27**	1.00				
5.최소화반응	.30	.01	-.57	.33**	1.00			
6.처벌적반응	-.07	-.42**	-.28**	.65**	.47**	1.00		
7.외현화 문제행동	-.12*	-.22**	-.25**	.27**	.16**	.29**	1.00	
8.내면화 문제행동	-.14**	-.23**	-.21**	.28**	.17**	.35**	.66**	1.00
평균	2.61	3.03	2.93	2.23	1.95	2.49	1.90	2.07
표준편차	.33	.31	.30	.28	.42	.32	.36	.44

**$p < .01$, *$p < .05$.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A)과 비지지적 반응(B)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지적 반응 중 한 변인(A)과 비지지적 반응 중 한 변인(B)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A)와 (B)의 상호작용항을 2단계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공선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VIF 값이 1.04～1.1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A)과 비지지적 반응(B)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효과(β = .14, $p < .01$),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처벌적반응의 상호작용효과(β = .14, $p < .01$), 문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효과(β = .14, $p < .05$), 문제중심반응과 처벌적반응의 상호작용효과(β = .14, $p < .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높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에 따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 = -.02, t = .20, ns), 어머니가 낮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 정서중심반응이 클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6, t = -4.25, $p < .001$). 다음으로 [그림 2]에서는 어머니가 높은 처벌적반응을 보일 경우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이 클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며(b = .47, t = 1.92, $p < .05$), 어머니가 낮은 처벌적반응을 보일 경우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이 클수록 유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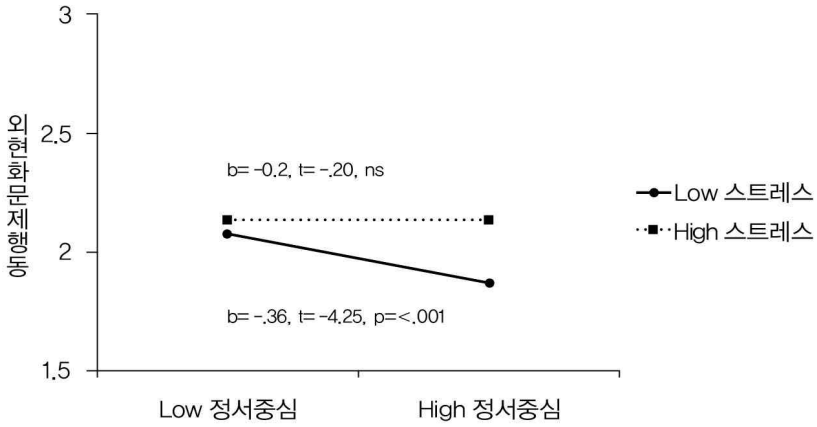
〈표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A)과 비지지적반응(B)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N = 346)

구 분	외현화 문제행동				
	B	SE	β	R^2	F
모형 1					
감정표현격려반응(A)	-.08	.07	-.06	.08	10.02***
스트레스반응(B)	.39	.08	.25***		
A * B	.17	.20	.04		
감정표현격려반응(A)	-.17	.06	-.13*	.05	5.71***
최소화반응(B)	.34	.10	.25***		
A * B	-.27	.16	-.12		
감정표현격려반응(A)	-.11	.07	-.08	.07	12.03***
처벌적반응(B)	.29	.05	.28***		
A * B	.08	.15	.03		
모형 2					
정서중심반응(A)	-.17	.07	-.21*	.11	13.79***
스트레스반응(B)	.29	.08	.18***		
A * B	.57	.21	.14**		
정서중심반응(A)	-.31	.07	-.22***	.08	9.22***
최소화반응(B)	.22	.07	.16**		
A * B	-.08	.17	-.02		
정서중심반응(A)	-.11	.08	-.08	.12	14.84***
처벌적반응(B)	.24	.05	.23***		
A * B	.43	.16	.14**		
모형3					
문제중심반응(A)	-.21	.07	-.15*	.07	15.94***
스트레스반응(B)	.29	.08	.19***		
A * B	.62	.24	.14*		
문제중심반응(A)	-.36	.07	-.25***	.09	11.51***
최소화반응(B)	.23	.07	.17**		
A * B	.00	.18	.00		
문제중심반응(A)	-.19	.07	-.13*	.13	17.71***
처벌적반응(B)	.25	.05	.24***		
A * B	.45	.1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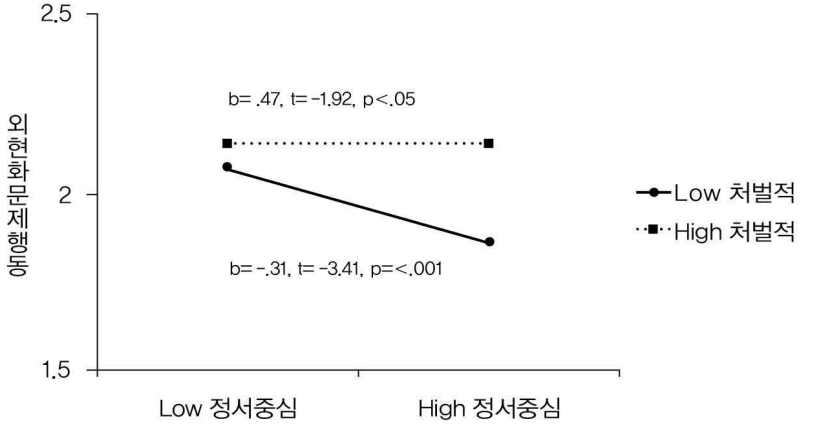
***p < .001, *p < .05.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b = -.31, t = -3.41, p < .001). 또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높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 어머니의 문제중심반응에 따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 = -.05, t = -.45, ns), 어머니가 낮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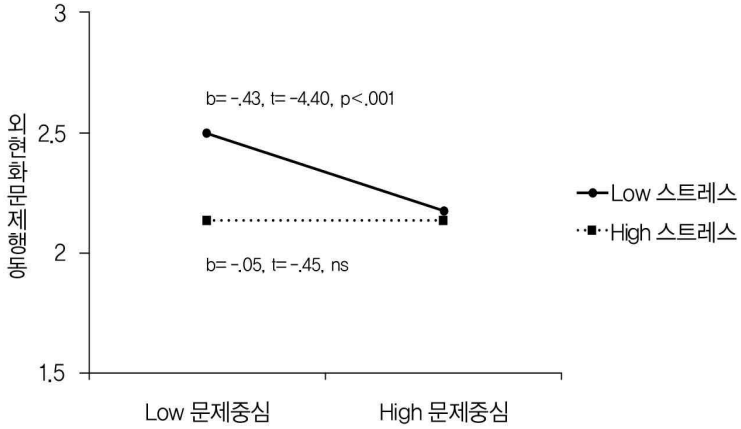
는 문제중심반응이 클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3, t = -4.40, p < .001). 한편 [그림 4]에서는 어머니가 높은 처벌적반응을 보일 경우 어머니의 문제중심반응에 따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 = .08, t = 1.62, ns), 어머니가 낮은 처벌적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문제중심반응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b = -.04, t = -.4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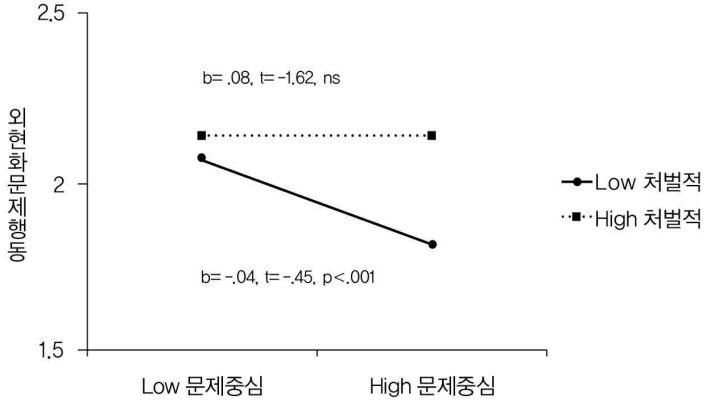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처벌적반응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중심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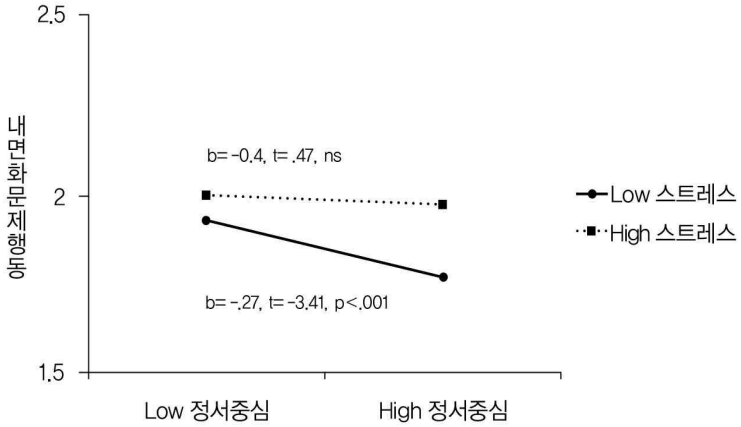
〔그림 4〕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문제중심반응과 처벌적 반응의 상호작용효과

다음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변수의 유의한 주효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더 보일수록(β = .25, p < .001) 감정표현격려반응이 적을수록(β = -.13, p < .05) 최소화 반응과(β = .25, p < .001) 처벌적반응을 더 보일수록(β = .28, p < .00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어머니가 정서중심반응을 더 적게 보일수록(β = -.22, p < .001), 최소화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 (β = .16, p < .01)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모형 3에서는 어머니가 문제중심반응을 더 적게 보일수록 (β = -.25, p < .001), 최소화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β = .17, p < .0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모형들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5～13% 설명하였다.

2)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A)과 비지지적 반응(B)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높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 정서중심반응에 따라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 = .04, t = .47, ns), 어머니가 낮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b = -.27, t = 3.41, p < .001).

다음으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반응이 적을수록(β = -.15, p < .01), (β = -.11, p < .05), 스트레스반응(β = .26, p < .001)과 최소화반응(β = .25, p < .01), 처벌적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β = .33, p < .001)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2에서는 정서중심반응을 적게 보일수록(β = -.15, p < .01), (β = -.22, p < .001) 최소화반응(β = .25, p < .001)과 처벌적반응을 더 많이 보일수록(β = .18, p < .001)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3에서 어머니가 문제중심반응을 적게 보이고(β = -.12, p < .05), (β = -.15, p < .01), (β = -.22, p < .001), 스트레스반응(β = .22, p < .001)과 최소화반응(β = .25, p < .001), 처벌적반응을 적게 보일수록(β = .20, p < .001)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모형들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6～14% 설명하였다.



〔그림 5〕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 효과

〈표 4〉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A)과 비지지적반응(B)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N = 346)

구 분	내면화문제행동				
	B	*SE*	β	R^2	*F*
모형 1					
감정표현격려반응(A)	-.09	.06	-.09	.09	11.34***
스트레스반응(B)	.33	.06	.26***		
A * B	.10	.16	.03		
감정표현격려반응(A)	-.16	.05	-.15**	.06	6.64***
최소화반응(B)	.27	.08	.25***		
A * B	.19	.13	-.11		
감정표현격려반응(A)	-.11	.05	-.11*	.14	17.75***
처벌적반응(B)	.28	.04	.33***		
A * B	.04	.12	.02		
모형 2					
정서중심반응(A)	-.14	.06	-.12*	.11	13.76***
스트레스반응(B)	.25	.07	.20***		
A * B	.37	.17	.11*		
정서중심반응(A)	-.16	.05	-.15**	.08	10.26***
최소화반응(B)	.27	.08	.25***		
A * B	.19	.13	-.11		
정서중심반응(A)	-.26	.05	-.22***	.11	13.76***
처벌적반응(B)	.20	.06	.18***		
A * B	.17	.14	-.06		
모형3					
문제중심반응(A)	-.14	.06	-.12*	.10	12.64***
스트레스반응(B)	.28	.06	.22***		
A * B	.25	.20	.06		
문제중심반응(A)	-.16	.05	-.15**	.08	9.62***
최소화반응(B)	.27	.08	.25***		
A * B	.19	.13	-.11		
문제중심반응(A)	-.25	.06	-.22***	.11	18.20***
처벌적반응(B)	.20	.06	.20***		
A * B	-.19	.15	-.07		

***p < .001, **p < .01,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개인으로서의 어머니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여러 상황에서 유아에게 한 가지 유형의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서 때에 따라 비일관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가지 형태의 어머니의 반응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주효과뿐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알아보았다. 분석된 본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먼저 상호작용효과 중에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효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정서중심반응과 처벌적반응의 상호작용효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 효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중심반응과 처벌적반응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4개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반응이 처벌적반응이 높은 경우에는 정서중심반응이나 문제중심반응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반응 낮은 경우에는 정서중심반응이나 문제중심반응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 즉,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인 스트레스반응이나 처벌적반응을 크게 보일 때는 지지적 반응인 정서중심반응이나 문제중심반응을 높게 보이든 낮게 보이든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지만, 어머니가 비지지적반응인 스트레스반응이나 처벌적반응을 낮게 보일 경우에 높은 정서중심반응이나 문제중심반응을 동반한다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대폭 감소하였다. 4개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이와 같이 공통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스트레스반응, 처벌적반응)을 높게 보일 때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정서중심반응)의 효과도 크지 않으나,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낮게 보일 때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높으면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

우선, 비지지적 반응이 높은 경우에는 지지적 반응이 높아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는 반면, 비지지적 반응이 낮은 경우에만 높은 지지적 반응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일관적 반응의 긍정적 효과와 비일관적 반응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지지적 반응과 높은 비지지적 반응으로 비일관적 반응은 아니지만, 높은 지지적 반응과 높은 비지작 반응은 비일관적 이라는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일관적 양육의 부정적 효과를 발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권정윤, 김은희, 2014; 이은경, 한세영, 2016; 전란영, 김희화, 2016; 정계숙, 노진형, 2010; Zentall & Morris, 2010). 또한, 이러한 효과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 또한 흥미롭다.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일관적

인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사회에 수용되는 방식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표현방식인 반항적 행동이나 공격성 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유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비일관적인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지지해주는 존재인지에 대한 신뢰감을 강하게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자신이 표현한 부정적 정서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과 혼란으로 인해 유아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적절한 표현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 반항적 행동, 공격성, 주의력결핍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를 방해한 것으로 추론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유아의 양육상황에 적용해 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인 괴로움을 표현하는 스트레스반응을 보일 경우, 비록 지지적 반응인 정서중심반응 등을 함께 보여준다 해도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 반응의 부정적 효과가 강하지만, 어머니의 스트레스반응은 보이지 않고 유아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정서중심반응을 동시에 보여준다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지지적 반응을 하는 것보다 비지지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비지지적인 반응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어머니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변인들도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정표현격려반응과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며, 스트레스반응, 처벌적반응, 최소화반응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할수록 정서적 자기 조절 능력이 높고, 비지지적인 처벌적,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힌 김지연과 남은영(2011)의 연구,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정서중심적 반응을 하면 유아는 긍정적 대처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 선행연구들(강희연, 강문희, 1999; Eisenberg & Fabes, 199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는 타고난 기질에 의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며, 이들은 자신이 표현한 부정적 정서의 의미를 대부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자신이 표현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표현격려 반응을 보여 자신의 정서를 수용해주거나, 정서중심 반응으로 기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경우에는 유아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되는 경험과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전환하는 기술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어머니가 최소화하거나, 자신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처벌적하거나, 자신이 표현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나 괴로움으로 반응하면, 유아는 자신의 감정이 수용되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존중감의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적절한

대처행동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의 주효과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모형에서 지지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 반응의 영향력보다 비지지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문제행동의 두 유형인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 모두에게 공통되는 결과이다.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보였을 때 어머니가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을 적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한 전략수립에도 시사점이 있는 결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지지적인 반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지지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먼저 상호작용효과 중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중심반응과 스트레스반응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문제 1의 결과에 대해 논의한바와 같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1개의 상호작용효과는 역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경우에는 정서중심반응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이 낮은 경우에는 정서중심반응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 어머니가 스트레스반응을 높게 보일때는 효과가 없는 높은 정서중심반응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반응을 보이지 않을때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개인 내에 다양한 양육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양육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유의미한 5개의 상호작용효과 중 4개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 나타났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1개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유아의 문제행동 중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반응뿐만 아니라 비지지적인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변인들도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제중심반응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며, 최소화반응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며, 처벌적반응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문제중심적 반응을 하면 유아는 긍정적 대처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 선행연구들(강희연, 강문희, 1999; Eisenberg & Fabes, 199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의 주효과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구문제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모형에서 지지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문제중심 반응의 영향력보다 비지지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 최소화 반응, 처벌적반응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벌적반응만이 지지적 반응에 속하는 정서중심 반응과 문제중심 반응 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적반응은 감정표현격려 반응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상대적 영향력이 감정표현 반응보다 더 컸으나, 정서중심 반응이나 문제중심 반응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적반응의 상대적 영향력은 정서중심 반응 보다 더 컸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정서중심 반응 보다 더 작았다. 이는 문제중심 반응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적반응의 상대적 영향력은 문제중심반응 보다 더 컸고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문제중심반응 보다 더 작았다. 즉,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적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정서중심 반응이나 문제중심 반응을 적게 하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위축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은 양육자와의 신뢰관계, 애정적 관계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내면의 문제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처벌적반응은 외현화된 행동으로 표현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처벌적반응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정서중심반응이나 문제중심반응과 같이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를 괴롭히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달리 위축이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은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내면에서 더 큰 문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로 인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유아가 지각하거나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훈련하는 형태로 부정적 정서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에 더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동후기와 청소년기로 이어질 경우 자살과 같은 심각한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Show, Gilliom, Ingoldsby 그리고 Nagin(2003)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효과를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유아의 부정정서를 직접 측정하고 변인화하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갖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높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는 부정적 정서의 높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어머니 개인 내부에 공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인 감정표현격려반응, 정서중심반응, 문제중심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인 스트레스반응, 최소화반응, 처벌적반응이 각각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를 밝혔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어머니의 반응이 동시에

고려될 때 갖는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밝혀, 두 개의 다른 측면의 반응이 결합할 때 주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적인 효과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작용했음을 알린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효과의 크기 및 상호작용의 방향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이 점은 유아기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고자 하는 유아교육현장 또는 부모교육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희연, 강문희 (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 수용 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공영숙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연희 (2012).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5), 13-24.

권정윤, 김은희 (2014). 통제적인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반응.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지, 18**(6), 333-361.

김연 (2007).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박유경 (2009).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유형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기질, 또래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양육 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주, 김영희 (2000).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가족영향력과 아동의 문제행동. **놀이치료연구, 4**(2), 45-58.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진숙 (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송진영, 송진숙 (2015). 학령전환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85-112.

안효진, 임연진 (2011).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31**(2), 53-68.

유영신, 유연옥 (2015). 유아의 기질,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23-140.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이은경, 한세영 (2016). 부모의 애정과 감독 및 비일관적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3), 153-172.

이찬숙 (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찬숙, 이채호 (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및는 기질, 사회적 유능감,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영유아영유아교원교육학회, 13**(5), 27-44.

임현주 (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학회, 35**(2), 97-115.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정계숙, 노진형 (2010). 유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준에 따른 모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모와 교사의 다중평정을 통하여. **인간발달연구, 17**(1), 285-300.

정길정, 배윤정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아동의 놀이형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3), 365-378.

정윤주 (200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관련 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11), 23-34.

조인영 (201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 1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3), 182-186.

Belsky, J. (2005).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NY: Guilford Press.

Belsky, J. (2013).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7*(2), 15-31.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Y: Guilford Press.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Denham, S. A. (1984).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Guilford Press.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1), 73-101.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Dunn, J., Brown, J., & Br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1996) Parent'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Description and scoring*. Temp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Gottman, J., Katz, L., & Hooven, C. (1996).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ity: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Larzelere, E. M., Ambersun, A. J., & Martin, G. T. (1989). The Toddler Behavior Checklist: A parent-completed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38*(4), 418-425.

Mathiesen, K. S., & Sanson, A. (2000).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from 18 to 30 mon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15-31.

Sho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2003).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107-119.

Zentall, S. R., & Morris, B. J. (2010). "Good job, you're so smart": The effects of inconsistency of praise type on young children's mo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7*(2), 155-163.

논 문 투 고 : 16.09.06
수정원고접수 : 17.02.15
최종게재결정 : 17.06.08